

# 성도의 빛 9

198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의 벗 9  
1981

차 례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킴볼  
앤 엘든 태너  
메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힌터  
토마스 에스 문슨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에쉬튼  
브루스 알 맥클린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라셀 벨라드 이세  
로레 사 던  
렉스 디 피네가  
찰즈 에이 디메이  
조지 파 리  
에프 엠지오 부쉬

신성 모독에 대한  
김볼 대관장의 말씀.....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  
험담 : 사탄의 올가미.....진 알 쿡 장로..... 6  
건강 유지 : 복지 사업에서 제시하는 방법..... 8  
결혼 생활을 변화시킨 나 자신의 변화.....15  
교회 지도자의 상.....마크 이 피터슨 장로.....19  
나는 2월에 태어날 것입니다.....폴로렌스 비 닐슨.....26  
레이몬드와 버스.....캐드런 롱거 엘리스.....28  
부역에서 받은 응답.....수 앤 크로킷.....30  
질 의 응답.....32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 : 18)..... 존 에이 그린.....35  
축복사의 축복.....리그랜드 리차즈 장로.....38  
에밀리의 자존심.....윌리엄 지 하틀리.....44  
주님의 방법을 간구할 때.....스티븐 엘 러.....46  
한밤의 음악회.....다이아나 맥피렌드 브라운.....48  
이방인의 겹소.....로다 루이스 배우닌.....51  
로렌즈 조노우.....54  
내 친구.....55  
매뚜기 이야기.....서우드 비 이드소.....58  
지역 지도자 메시지.....박 하천 광주 스테이크 부장.....62  
해외 소식.....64  
지역 소식.....65

성도의 벗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194호 제17권 제9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1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 진 피 톨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1AKO PRINTED IN SEOUL, KOREA 9/81 International magazine

© 198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류





# 신성 모독에 대한 김볼 대관장의 말씀

언젠가 내가 수술실에서 보조원의 도움으로 바퀴 달린 병상에 누여 나올 때였습니다. 병상이 무언가에 걸려 덜컹하자, 그는 벌컥 화를 내며 구세주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설을 했습니다. 마취에서 아직 덜 깬 상태에 있던 나는 움찔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욕되게 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죄송합니다.”하고, 풀이 죽은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주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셨던 다음의 계명을 잊었던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 20 : 7)

십계명은 몇 천년 전에 먼 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불경스런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세로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절정의 때의 유대인에게도 강조하였으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거듭 밝혀 주셨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물은 유대 청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마 19 : 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더 깊이 알고자 하여 “어느 계명이오니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십계명을 그에게 되풀이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십계명은 널리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마 5 : 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롬 3:13-14)

야고보도 악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몹시 꾸짖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야고보서 3:8, 10)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고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보라,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는 주의 이름을 사용하되 아무 권한도 없이 헛되이 사용하여 이런 죄로 정죄받을 자가 많음이니라.”(교성 63:61-62)

그러나 거리 모퉁이나 공식석상에서, 또는 일터나 연회석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오락장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보면 신성모독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연극이나 영화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기록에 의하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벧후 2:7) 루의 심정이 어땠하였겠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정신력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 20:7)

저해시켜 고통의 능력을 점점 소멸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음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언어와 음악에서 즐거움을 느끼지만, 몇 가지의 듣기 싫은 불협화음을 반복하여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는 상당히 널리 읽혀지며,



호평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책 한 권을 들추어 본 일이 있습니다. 나는 그 책에 천박하고 모독적인 말들이 들어 있는 것에 몹시 놀랐으며, 마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한 장본인이나 된 것처럼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왜 작가들은 그들 자신을 그토록 값싸게 팔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재능을 오용하는 것일까요? 왜 그들은 신성을 모독하고 욕설을 쓰고 있습니까? 왜 그들은 그들 자신의 창조주이신 구속주의 이름을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입술로 말하며 성스럽지 못한 붓으로 쓰는 것입니까? 왜 그들은 주님의 단호한 명령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레위기 19 : 12)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이사야 10 : 15)

한 무리의 젊은 농구 선수들이 내가 타고 가던 버스에 탔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심한 욕설을 할 수 있는가 시합이라도 하는 듯이 나쁜 말로 떠들어댔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어울렸던 연장자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의 참된 의미조차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해변가에 한때의 젊은이들이 차를 몰고 왔는데, 모래밭에 너무 깊숙이 몰고 들어와 차가 모래밭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힘을 합쳐 차를 빼려 했지만 그들 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 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너무 거친 말을 쓰는 바람에 도저히 그들 곁으로 다가설 수가 없었습니다. 십대 청소년들은 그들의 창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마치 그들이 만들어 낸 피조물의 이름인 양 아무렇게나 불러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태도에 질려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샌프란시스코 극장에서 공연하는 연극을 관람하였습니다. 그 연극은 뉴욕에서 장기 공연되었던 것으로, 널리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부족한 연극 배우들은 그들의 평범한 대화에서조차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가에 의해 써진 창조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관객은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작가와 배우와 관객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최악의 부속품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으며, 악을 허용하는 자에게 주는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잠언 29 : 24)

무대나, 전화를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이 예민한 귀와 눈은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에 의해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농장에서, 사교장이나 직장 등, 어느 곳에서나 구세주의 이름이 아무렇게나 욕되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각이 없고 조심성이 없고, 악하고 반항적인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도 별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면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깨끗하지 않은

언어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깨끗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치욕적인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극시키려는 추잡한 말은 그같은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서는 물론 듣는 사람의 품위까지도 손상시킵니다. 사람들이 외설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장점이거나 사나이다운 행동이나 약삭빠른 태도가 아니라 단점과 어리석은 행위로 받아들인다면 이 지상에 살았던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권능을 받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권능과 계시를 받지 않고도 계시 권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통하여 예언자는 이같은 무서운 죄를 끊임없이 징계해 왔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사 48:2) 자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욥은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사교적인 데에 마음을 쏟아 그들 집에서 잔치를 벌일 때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욥 1:5)고 했습니다.

그는 크게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는 뼈가 깎이고 살이 에이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

였고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욱하고 죽으라”고 하자, 충성스러운 욥은 아내를 꾸짖으며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욥 2:9-10)라고 말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미국 제1대 대통령)도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휘하의 장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1776년 7월 1일 그들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미국 군대에서 찾아보기 힘들던 악습, 곧 어리석고 사악한 외설스러운 욱과 맹세하는 악습이 유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인은 모든 장교들이 외설스런 언행을 삼가하는 모범을 보일 뿐 아니라 남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나 모든 인간이 합당치 못하게 하늘을 욱되게 할 때 전혀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기를 바란다. 그 외에도, 이것은 참으로 속된 악이므로 지각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경멸할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받드는 것은 교회 회원인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말일성도인 우리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흥차나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로운 마약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욱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욱을 하는 버릇을 금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입을 다물고 욕을 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기도와 설교와 토론을 할 때에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같이 노래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 9 : 6)

예수께서는 완전한 생활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자신의 완전한 생을 바쳐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

“그러므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  
(교성 63 : 61)

---

사람들입니까! 배은망덕은 시대의 죄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의 사업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바치신 생명, 곧 고귀한 은사에 대하여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의 비할 길 없는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경건한 태도로 우리 자신을 다시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명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로 하여금 어떻게 나의 이름을 입술에 담을 것인지 조심하게 할지니라.”(교성 63 : 61)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다른 사람들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가족도 그들이 불경스러운 말을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을 토론할 수 있다.

2. 기사 내용 중에 가족이 큰소리로 입을 수 있거나 여러분이 함께 읽으자 하는 보충 성구가 있는가?

3. 불경스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4. 김볼 대관장은 언어도 음악처럼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우리는 일상 언어가 즐겁고 교양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한다.

5. 가정을 방문하기 전에 그 가정의 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토론이 더 훌륭해지지 않겠는가? 이 토론에 관하여 가장에게 주는 감독 또는 정원회 지도자의 메시지가 있는가? \*

# 험담 : 사탄의 올가미

진 알 록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악한 생각과  
합당치 못한 말을  
내어 쫓게하여 영성이 자라고  
가득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선교부장 사무실 밖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듯이 시선을 교환하면서도 자기들이 교회 재판에 소환되어 왔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집행관들은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소 사건을 조사하는 데 매우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도덕이나 배도에 대한 죄과가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험담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느 훌륭한 형제 한 사람이 그날 저녁에 모인 사람들에게 위해서 부도덕하다는 큰 누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친구라고 여기던 사람들에게 의하여” 가해진 크나큰 피해는 쉽게 복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훌륭한 영혼이 거의 파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누가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또한 우정에 금이 가게 되었다면, 그것은 지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비회원들에게 미친 영향은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던 악을 누가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어처구니없게도 아주 작은 일에서 발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말들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

“조안 자매님이 그러는데요, ……”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하는 말을 들었는데 ……”

“확실하지는 않지만 ……”

“산체스씨 사촌이 말하기를 그 사람 생각으로는 ……”



“나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다면 말해 줄게요……”

죄악은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말은 잘 퍼져 나갑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그 두 가지에 모두 알맞은 손잡이가 됩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거짓말은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곧 사소한 거짓말과 큰 거짓말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역원들은 곧 이 주제에 관한 주님의 분명한 지시를 제시하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님은 백성들에게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레 19: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는 험담의 영향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18:7-8)

몇몇 사람들은 거짓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주의와 존경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들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몬경은 구세주께서 미대륙에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저들을 끊임없이 책동하였음이라. 참으로 저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며 분쟁을 일삼았으니,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장차 이를 선한 모든 일을 거역하게 하려 함이었던라.”(힐 16:22)

사탄은 백성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으며, 약 30년 후, 사악한 자들이 크

게 멸망한 후에 예언자 니파이는 “악마가 웃으며 그의 천사들이 기뻐하노니, 이는 저들이 간악함과 가증함에 빠졌음이라.”(니삼 9:2)고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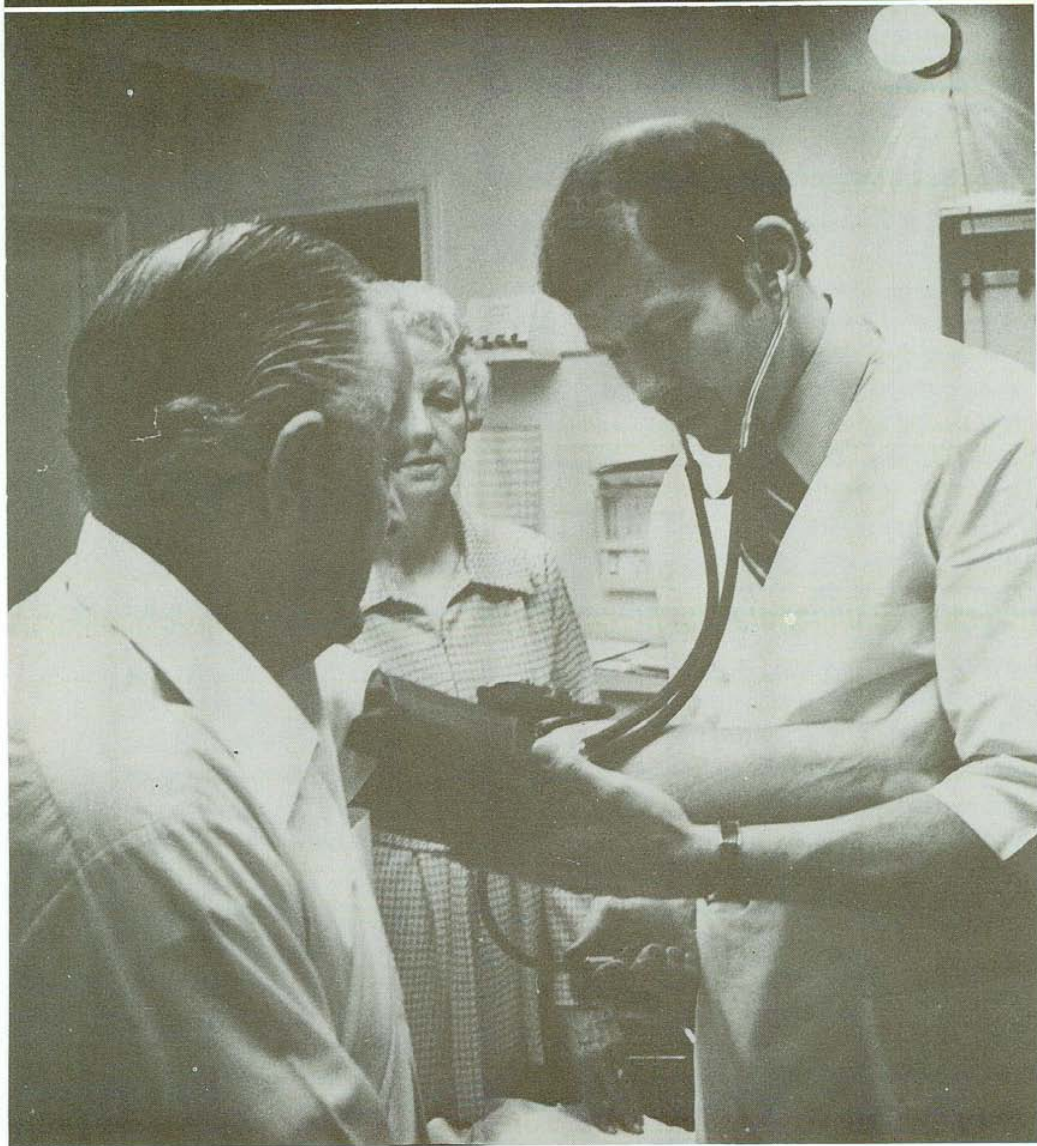
말을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훈계는 현대의 경전에서도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악행이 없는지, 서로 감정이 매립되는 일이 없는지, 거짓말하는 일, 험담하는 일, 욕설하는 일들이 없는지 살피며”(교성 20:54) “네 이웃을 욕하거나 해치지 말라.”(교성 42:27) “서로 다투기를 그치라. 서로 험담하기를 그치라.”(교성 136:23)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권고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7) “너희 말은 서로 덕성을 복돋움에 이바지하게 하라.”(교성 136:24)

수천년 전 에녹이 시현으로 보았던 다음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까. “또 그가 보니, 사탄이 있더니 손에 큰 사슬을 쥐었는데 그 사슬이 온 지면을 암흑으로 덮었고 바라보고 웃으며 그를 따르는 사자들도 기뻐하더라.”(모세서 7:26)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악한 생각과 합당치 못한 말을 내어 쫓게 하여 영성이 자라고 가득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자제할 때 우리 자신도 자제하게 됩니다. \*

# 건강 유지 : 복지 사업에서 제시하는 방법





말일성도가  
다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년간 미국의 중요 통계 조사에 의하면 유타 주민이 가장 낮은 사망율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세 가지 사망 요인(심장 마비, 암 및 뇌일혈) 중, 유타주가 1950년 이래 심장마비와 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미국내의 가장 낮은 주 또는 밀에서 두번째 주가 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우수한 기록 체계를 사용하고, 교회 기록과 유타주의 사망 신고서를 연결시켜 볼때, 우리는 유타주가 심장 질환과 암으로 인한 사망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전적으로 유타주의 말일성도 주민의 공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의 이점은 비활동 회원 가운데서보다는 활동 회원들 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서의 이와 유사한 조사에 따르면, 하와이 말일성도들이 암과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율이 감소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암과 심장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시키려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유타주의 말일성도들은 수명이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유타주의 말일성도 남자의 평균 수명은 미국내 백인의 평균 수명보다 7년이 더 길며, 말일성도 여자의 수명은 3년이 더 깁니다. 이와 같은 장수의 비

결은 담배와 알코올을 금하는 것이 원인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그나마 낮은 발생율을 보이는 암의 발생 부위도 담배나 알코올의 섭취와 관계가 없는 신체 부분, 예를 들면, 위, 결장, 자궁 경부 및 여성의 유방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생활 습관에서 말일성도가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많은 조사자들이 현재 이러한 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 적당한 수면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불규칙적인 수면 일정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적당한 수면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의 체세포를 정상적으로 바로잡아 회복시켜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작업 능률이 감소되며, 초조와 긴장이 고조되고, 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사람 또는 신체적으로 격렬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수면을 더 많이 취해야 합니다.

개인별로 적당한 수면 조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 왔습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다음날 활기를 되찾기 위하여 일찍 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잠

을 많이 자지 말라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성 88 : 124 참조)

캘리포니아 인구 생애 연구소는 7 내지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6시간이나 그 이하의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나 9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를 연구하는 텍사스주 휴스톤에 있는 연구소는 대부분의 인간이 하루 24시간 중 7 내지 8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생아는 하루 22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만 1세부터 4세까지의 어린아이에게는 12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만 4세부터 12세까지는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십대는 8 내지 10시간의 수면을 필요로 하고, 성인은 평균 수면 7 내지 8시간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하루의 수면 시간은 그것이 일 관성이 있고 또한 그 사람의 필요한 수면 시간에 적당하다면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교리와 성약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교성 88 : 124참조) 생활 습관을 지킴으로써 하루의 필요한 수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문. 우리는 식품 첨가물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듣습니다. 어떠한 위험을 들 수 있을까요?

답.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식품에 빠져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강화 시킴으로써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 빈도를 급격하게 저하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식빵에 철분, 나이아신, 지아민 등을 강화하여 몇 십년 전만 해도 미국의 남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빈혈, 펠라그라(피부병) 및 각기병 등의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가장 공통 되는 문제는

심장 마비에 의한 사망입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담배를 끊은 사람은

심장 마비의 위험이,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곧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담배를 피워 왔던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폐암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불행히도, 담배를 끊어도

폐암의 위험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된

담배 속의 타르나

이물질에 의하여

폐암이 서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40종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의 영양소만으로 불충분한 식이 요법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각 영양소의 필요량을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강 약제로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모든 영양이 풍부한 음식(우유, 고기, 과일, 채소, 빵 및 곡류)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방부제, 식용 색소, 인공 향료, 감미료 등과 같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질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상당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첨가물은 사용 허가가 나오기까지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안전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종류의 식품 첨가물은 이미 신체에 익숙한 화학제로 만들어집니다. 간혹 화학적인 결성체 또는 첨가물이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사용이 금지됩니다. 기후, 위생 시설이 마땅치 않거나, 불충분한 식품 보관 시설 또는 냉장 시설의 미비로 식품이 쉽게 상하는 지역에서는 몇몇 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큰 혜택을 받기도 했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자연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함으로써 해가 된다거나 건강이 손상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문. 금식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까?

답. 적당한 금식의 습관은 건강에 유익이 됩니다.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는 금식을 장기간 계속할 때입니다. 신체의 필수 영양소, 특히 수분이 결핍될

때 신체적인 문제가 야기되며, 금식을 지나치게 장기간 계속하면, 무서운 질병을 초래하여 급기야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금식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는 금식과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식이 그것입니다. 전자의 금식은 대개 음식과 물을 연속 두 끼 금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상 생활에서 어떤 위기를 맞게 되면 여러 날을 두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전문의들은 이와 같은 금식은 그 사람이 물은 계속 마시고 이삼 일마다 약간의 음식을 섭취하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계속되는 금식은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임신부, 사춘기의 청소년 그리고 만성 질환(당뇨병 등의 질환) 환자는 장기 금식을 해서는 안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금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매사에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라는 주님의 권고는 이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적당한 금식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문. 모유를 먹이는 것과 인공유를 먹이는 것의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은 각각 무엇입니까?

답. 모유가 인공유보다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산모도 있으며, 그러한 산모는 어머니로서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유와 모유를 먹이는 것에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 모유는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이

상적인 영양소가 균형있게 배합된 식품이며, 인공유는 다만 모유와 비슷하게 조제한 것입니다.

2. 모유는 깨끗합니다. 소독이나 보관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모유에는 면역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4. 모유에 함유된 철분은 보다 쉽게 흡수되며, 유아에게 이롭습니다.

5. 모유를 먹는 유아에게는 위장 장애나 소화 불량증 및 알레르기가 덜 나타납니다.

6. 모유를 먹임으로써 수유부의 자궁이 보다 빨리 원상으로 수축됩니다.

7. 모유가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8. 젖을 먹임으로써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사랑이 커지게 됩니다.

9. 모유를 먹임으로써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게 됩니다.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성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좀 쉬 수 있고 아기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게 되지요.” “나는 아기에게 젖먹이기를 좋아하고, 나도 좀 쉬어야 하지요.” “아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젖먹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하신 희생에 대해 좀더 이해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창조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모유로 키우지 않는 아기에게 적당한 인공유에 대하여는 소아과 의사나 다른 전문의와 상담하여야 한다.

문. 커피 이외의 다른 카페인 함유 음료수를 마시므로써 오는 건강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교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답.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학적인 견해와 개인의 판단에 맡깁니다. 콜라와 같은 음료수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혜의 말씀의 뜻에 따르자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회 책자는 1972년 2월자 신권 공보 제 8권 제 1호 여섯번째 기사 둘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콜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피력한 일이 없다. 다만 교회 지도자들은 습관화 될 우려가 있는 상황 아래서 유해한 습관성 약품이 함유된 음료수를 마시지 말 것을 권고 하였고, 지금 우리도 같은 권고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음료수는 무엇이든지 금하여야 한다.”

콜라와 같은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에게서는 감독이 신진 추천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라에는 병크기에 따라 커피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의 이분지 일 내지 사분지 일 해당되는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이 되는 중추 신경계의 흥분제로서, 신경을 흥분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콜라를 자주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 나는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 해 동안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이 나의 건강에 영원히 영향을 미칩니까?



답. 담배를 끊은 사람에게 오는 유익한 영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흡연으로 인한 가장 공통 되는 문제는 심장 마비에 의한 사망입니다. 연구 조사에 의하면, 담배를 끊은 사람은 심장 마비의 위험이, 전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곧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해 동안 담배를 피워 왔던 사람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폐암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불행히도, 담배를 끊어도 폐암의 위험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된 담배 속의 타르나 이물질에 의하여 폐암이 서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흡연 기간이 암의 위험 정도의 중요한 측정기가 됩니다. 그러나 암의 위험은 전에 흡연가가 흡연 습관을 버린 후의 시간에 정비례하여 점차로 사라지게 됩니다.

문. 위생과 청결에 관하여는?

답. 인간 가족을 괴롭히는 많은 유기물질이 깨끗한 환경에서는 번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유의해야 합니다. 쓰레기와 오물을 없애거나, 집안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없애면 쥐가 사라집니다. 그릇을 뜨거운 비눗물로 닦으면 온갖 종류의 병균이 없어집니다. 이불호청을 자주 깨끗이 빨면 빈대나 벼룩이 살지 못합니다. 머리를 샴푸로 자주 깨끗이 감으면 이가 살 수 없습니다. 싱크대나 변기도 자주 솔질하고 소독하면 병균이 살지 못합니다. 음식 부스러기가 없는 부엌에는 개미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에도 물론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질병

콜라와 같은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감독이 신진 추천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 정책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콜라에는

병 크기에 따라

커피 한 잔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의  
이분지 일 내지 사분지 일에 해당되는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이 되는 중추 신경계의 흥분제로서,  
신경을 흥분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콜라를 자주 마시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중독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맞다고 해서 그 원인을 반드시 집안 이 불결하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질병, 주로 전염성 질환은 청결과 위생적인 생활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 나의 가족은 어떤 예방법을 취하여야 합니까?

답. 면역 프로그램은 전세계를 통하여 전염성 질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사망 및 불구 요인이었던 소아마비는 정기적인 예방 접종으로 오늘날에는 거의 예방되고 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세계를 위협하여 왔던 천연두는 전 세계적인 예방 접종으로 인하여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백신 접종으로 예방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면역성을 얻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협조함으로써 온 지역 사회의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질병에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풍진 및 볼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예방 접종표에 따라 자녀에게 예방 접종을 시킴으로써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수

**예방 접종표**

연령	홍역	파상풍	소아마비	풍진	볼거리
2개월	×		×		
4개월	×		×		
6개월				×	
15개월	×		×	×	×
18개월	×		×		
4-6세	×		×		

있습니다.

부모는 예방 접종 기록을 세밀히 작성하고 모든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마치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악신 접종이 필요한 질병으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인플루엔자, 간장염, 폐렴 및 폐결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에 살거나 여행하는 경우, 그 지역 지도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며 가족의 예방 접종에 관한 전문가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 질병에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풍진 및 볼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본 기사에 수록된 질문 사항에 답을 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보전 분야의 전문가인 말일성도들이다. 위니프레드 더블류 베이즈; 전문 수련의, 호머 에스 엘스위스; 전문의, 아이삭 시 퍼거슨 박사; 제임즈 알 굴리치 정신 건강 교육자; 존 엠 힐 이세 의학박사; 필리스 시 제콕슨 박사; 전문의, 조셉 엘 리온 의학 박사; 전문 수련의, 수잔 멘든힐; 엘튼 리 타이거슨 교육학 박사; 전문의, 로저 알 윌리엄스. \*



# 결혼 생활을 변화시키는 나 자신의 변화

나는 비물론과 결혼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교회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결혼 생활을 지상의 조그만 천국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 남편이 교회에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행복하였고 남편 역시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브랜트와 결혼한 후 처음 칠년 동안 나는 그에게 잔소리를 해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심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확실히 자기가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친구들과 자주 밖으로 나다니며, 나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적고, 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며, 너무 술을 많이 마시고, 집안 일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이혼 경력으로 나는 내가 결코 브랜트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남편도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가 있어 주기를 바라는 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남편은 여러 번 가방을 챙긴 적이 있었지만, 집을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부부는 다정한 성품으로 서로에 대하여 깊이 염려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성품이 분노에 가려질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의 생활 태도 때문에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이 생활 태도를 조금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러한 좌절감 때문에 우리 가정 생활은 더욱 우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호부조회에서 우리는 가정의 분위기는 여성이 조성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고, 도움이 될 만한 잡지 기사와 책을 찾았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서 나의 행동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깨닫게 된 첫번째 사실은 칠년 동안 잔소리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가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내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 스스로를 변화시켜, 명랑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완전케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완전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내가 언젠가는 남편과 교회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만한다는 생각을 계속 갖는다면 나는 결코 남편을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 나는 교회에 관계되는 결정 사항을 비롯하여 매사에 있어서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공과, 주일학교 공과반, 개인적인 경전 연구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많은 기도를 해가며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남편이 늦게 귀가해도 즐겁게 맞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열쇠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늦게 집에 왔을 때 처음으로 내가 기분 좋게 맞자 그는 “무슨 일이 있었오?”하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남편 걱정하느라고 힘이 빠져 버린 나보다는 주위 환경의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남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간구했노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남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그는 귀가 시간이 늦을 경우에는 미리 집으로 전화연락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즐겁게 맞아 주는 집으로 일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을 때, 나는 화를 억누르기 위해 밖으로 나가 바람을 쏘이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음주로 인한 언쟁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좋은 경험에 용기를 얻은 나는 다른 분쟁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외출하자고 조르는 대신, 내가 가족의 소풍이나 가정의 밤을 계획하여 그를 우리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응할 때도 있고, 응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함께 있으면 기뻐하였으나, 그가 바빠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가도록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가 싫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남편에게 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도와 준 일들에 대하여 일일이 감사사를 표하였고, 그가 해주는 사소한 칭찬의 말, 선물, 사려깊은 행동, 애정 등 사소한 것이 이르기까지 일일이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나는 또한 그의 옷 맵시, 그의 유머 기질 등 내 눈에 띄는 모든 그의 장점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말할 나위도 없이 나는 그에게서 점점 장점만



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더 눈에 떨수록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으며, 나는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나는 진심으로 그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남편 탓으로 돌리고 비난하는 대신에, 남편에게 가서 그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달려 있었던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나는 교회 모임에 가거나 자녀들을 어디 데리고 갈 때 그의 허락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마음대로 해. 내가 안된다고 말해도 당신은 할 것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반대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결국 내가 그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더욱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향상시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설 것이가 안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 것이는 제때에 하였습니다. 나는 또한 수면을 좀더 많이 취하여 보다 유쾌하게 지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나는 연구하고,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또다시 계획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우리 가정을 보다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기꺼이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체중도 약간 줄이고, 옷도 더욱 단정히 입었으며, 남편이 좋아하는 대로 머리를 약간 길게 길렀습니다. 나는 특별히 남편이 나를 위하여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생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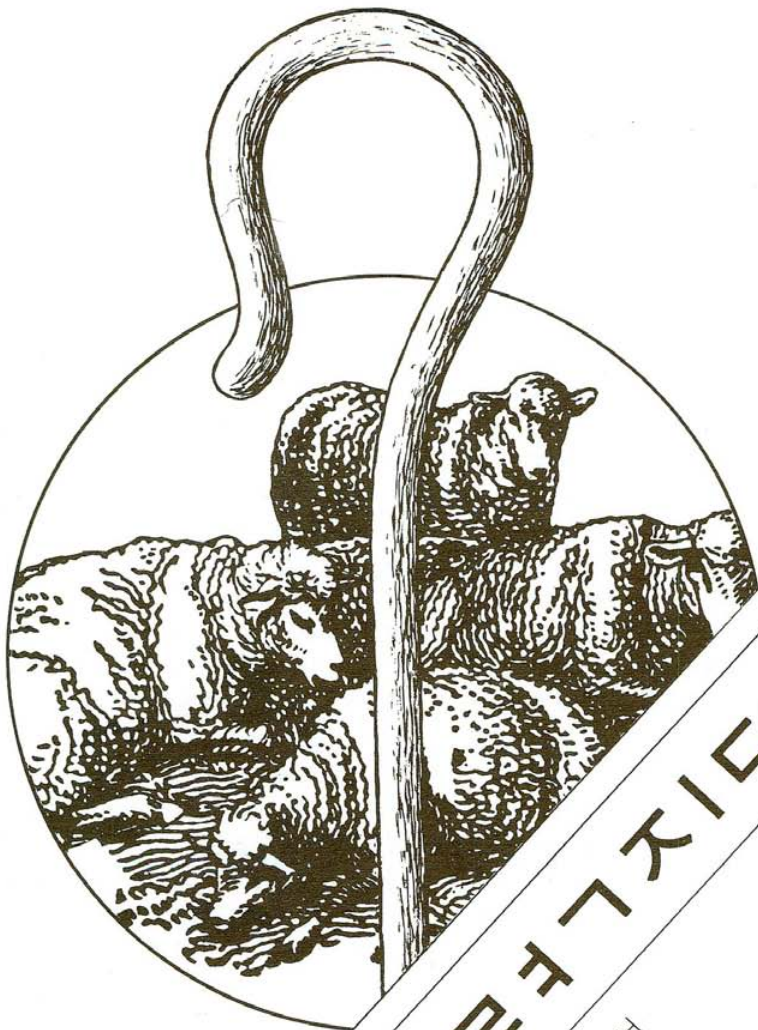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해결 수 있는 것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했으며,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 달 전, 남편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사업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내게 해주었습니다. 나도 매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로 보내는 그의 미소, 내 손을 붙잡고 산보하는 일, 나를 웃기려 하는 그의 농담, 전화를 걸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하는 말, “사랑하오”라는 뜻을 전하는 작은 선물, 우리 부부 단 둘만의 점심 식사 데이트 등은 모두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나는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즐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자주 야외로 놀러 갑니다. 그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남편이요 아빠로써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으로 분명히 남편이 침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더라도 내가 그 동안 복음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얻게 된 우리 가정의 사랑과 평화, 성장과 발전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



가정교  
가정교  
가정교

# 지디노리크지디노리

가정교 교회에서

# 교회 지도자의 상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구세주께서 니파이인 십이사도들이 성역을 베풀기 시작할 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그와 같은 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그는 언제 그의 사도들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까? 내일이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성역자로서, 모든 인류에게 그때마다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이 사업을 수행

할 때 지녀야 할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그의 사업이요, 그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온전하신 것처럼 실제로 온전하게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같은 기회는 모든 인류, 모든 나라와 기후가 다른 나라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울은 같은 질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



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15)

우리는 그의 전파자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역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겠습니까?

### 마음을 돌이킨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우리는 이 가르침을 침례를 통한 물과 성령으로의 태어남과 연관시킵니다. 우리는 곧잘 물의 침례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성령의 침례에 대하여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수례로써 확인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달라지고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즉,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죄로 물든 인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 이름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골 3:9-10 참조)

우리는 거듭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진실로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으며, 그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도록 권능을 입었음을 믿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은 시작되고 우리 자신의 구원이 확장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그의 거듭남의 영향을 끊임없이 간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껏 노력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정돈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바로잡아 주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서 기대하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는 교훈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어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한 다음과 같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20-21)

이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부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목적이며 책임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종교의 심장이요 핵심입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이 없이

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의 언행은 모두 이 위대한 진리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는 하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대표자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대로 생활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우리는 안수례로써  
확인을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하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참된 의미에서  
우리는 달라지고  
보다 나은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

#### 모범이 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딤후 4:12)

우리는 교리와 성약 제 4편의 내용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한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

나니,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비,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

“받은 이미 무르익어 추수할 때로다. 보라, 힘을 다하여 낫질하는 자는 창고에 쌓아 두는 자니, 파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육을 구원시키느니라.”(교서 4:5-6, 4)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는 가정 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가정에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에게 참된 기독교인의 모범을 보이면, 그들 역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숙하게 행합니까? 은밀하게라도 우리가 혹 죄나 가증함을 허용하여 하나님의 영을 막는 담을 쌓아서, 우리 생활이 거룩하지 않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덕성을 우리 생활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선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한 이웃들 앞에서 하는 행동이 일상 생활에서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초월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것을 달성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도자로서 우리는 항상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그릇된 태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합

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합니까? 우리는 정직합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과는 반대로 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정합니까? 우리는 용서란 다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합니까? 이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의 종의 영상에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의 목자입니다. 이 양떼에는 교회의 회원은 물론, 우리 가족도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다와짐으로써, 우리는 그들도 그리스도답게 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헌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프로그램에 기꺼이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들에게 지시를 따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영의 감화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일치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에게 영의 감화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보잘것 없는 자원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 진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 하나가 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의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도 하나로 묶는 원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당하시기

전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하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20-21 참조)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그는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2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본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성공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의 편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일어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도 그 속에서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크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고대 교회가 사라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쟁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있던 바와 같은 다툼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며……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돌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이 나의 가르침이라.”(니삼 11:28, 30)

예언자 요셉 스미스 시대에 시온성을 건설하는 일이 금지된 원인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성도들이 미주리주 잭슨군으로부터 추방당하자 주님께 간절히 기도로 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도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베게 이르노니, 저들 가운데 알력과 논쟁, 시기와 분쟁 및 욕욕과 탐욕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이로



써 저들이 상속의 땅을 더럽혔느니라.

“또 저들은 주 저희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들으시기를 더디하셨고 저희 환난의 날에 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더디하셨느니라.

“저들이 평화로운 날에는 나의 훈계를 가버이 여기더니, 환난의 날에는 부득이 나를 찾는도다.”(교성 101 : 6-8)  
순종에 대한 이보다 더 훌륭한 논제가 있겠습니까?

#### 순종하라

주님은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더 큰 헌신을 종용하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지시를 따르기를 기대하신다는 내용을 다시 나타내셨습니다.

“어느 귀족이 지극히 좋은 땅을 가지고 있더니,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감람원 곧 이 지극히 좋은 땅에 가서 감람나무 열두 그루를 심고,

“그 주위에 파수꾼을 두며 망대 하나를 세워 그 위에 한 사람이 그 주변의 땅을 두루 살펴 원수가 와서 나의 감람원의 열매를 노략해 가져 가려 할 때에 나의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지 않게 하라 하는지라.

“귀족의 종들이 가서 저희 주인이 명한 대로 감람나무를 심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치며 파수를 두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더니,

“저들이 아직 그 기초를 놓고 있을 때에 저들이 서로 이르기를 우리 주인에게 이 망대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서로 상의하더니, 서로 말하기를 지금은 평화로운 때니 이 망대

가 주인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줌이 어찌하고,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음이니라 하더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저들은 심히 게을러져서 주인의 명령을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니,

“원수들이 밤에 와서 울타리를 쓰러뜨리는지라 귀족의 종들이 일어나 두려워 도망하니 원수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파괴하며 감람나무를 꺾어 버렸더라.

“이제 보라, 귀족 곧 감람원의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 이르되, 이는 무슨 연고뇨? 이 큰 재앙의 원인은 무엇이뇨?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뇨? 감람원을 가꾼 뒤에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벽 위에 파수를 두며 망대를 세워 망대에 파수를 두어 나의 감람원을 살피게 하고 잠들지 아니하여 원수가 너희에게 오지 않게 했어야 하였거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무슨 연고뇨?”(교리와 성약 101 : 44-53)

감람원의 종들이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망대가 주인에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도 이같은 회의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어느 누가 이것 또는 저것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는가 라고 말하지나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시를 완전히 순종하여 사소한 것까지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

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교성 107 : 99) 우리는 우리의 부름을 알아야 하고, 정신의 모든 예지와 신체의 모든 힘을 다하여 그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 헌신하라

그러면 교회 지도자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다른 모든 성역자들의 상과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총관리 역원의 상과 다르겠습니까? 훌륭한 지역 대표, 훌륭한 스테이크 부장,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교 부장, 훌륭한 장로 정원회 회장의 상과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그의 백함받은 종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신권의 똑같은 성약 아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자리, 직위 등을 얻기 위한 야망을 품고 있습니까? 그러한 태도를 그리스도다운 태도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겸손이 결여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세베데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형제들보다 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해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같은 야망을 꾸짖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마 20 : 24)

구세주께서는 그들 사이에 부정이 없어야 함을 명백히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

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 : 26-27)

어떠한 경우에도, 임무에 헌신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합니다.

### 생산자가 되라

다음으로, 주님은 우리가 생산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은 이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의 상을 보여 주십니다.

이 장은 주님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로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의 아버지를 농부로, 자기는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이며 우리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많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요한복음 15 : 1-2)

주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일을 명확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포도원에서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가지를 칩니다. 그는 우리를 성결케 하여 우리가 그의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

쓰하십니다. 왜 그같은 가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까? 가지가 원 나무에서 절단되면 양분을 공급하는 수액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주님은 그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한복음 15 : 4)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 : 5)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그의 영으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그의 힘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나무에서 잘리워진 가지가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 : 5)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제에 더 중요성을 첨부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한복음 15 : 8)

그러나 이 성구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다른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실을 맺기 위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고 성임받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부름과 성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요한복음 15 : 16)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우리의 태만으로 인하여 어느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거나 간증을 잃게 되거나 비활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과실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의 상은 태도의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노력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15 : 7, 10, 11)

(1979년 3월 30일 지역 대표에게 한 연설에서 발췌함)

\*



# 나는 2월에 태어날 것입니다

플로렌스 비 날슨

자녀를 얻지 못한 부모만이 자녀가 없는 9년 반 동안의 결혼 생활 중에 느끼는 비탄과 좌절과 시기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남편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에는 그에게 자녀가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축복사 축복에는 결혼 이야기조차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권 축복을 두 번이나 청하여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감독이신 나의 친정 아버지에게서 받았고 또 한 번은 오 년 전 스테이크 부장에게서 받았습니다. 첫번째 축복은 “주께



서 정하신 좋은 시기에” 자녀를 약속해 주었으며, 두번째 축복은 우리가 풍요롭고 온전한 생활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1975년 6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위 수여와 함께 브라질로부터 직장을 교섭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모두 창고에 몰아 넣고 옷 가방 두 개, 책 가방 하나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브라질로 떠났습니다.

브라질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사랑스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아버지라도 자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양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서보다 이곳에서 어린이를 입양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서도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면 “좀더 기다려 봐야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도착한 지 여러 주일이 지난 후—언어와 습관이 다른 탓도 있었지만 주 원인은 집안이 텅 비었기 때문에—나는 향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한번도 느껴 보지 못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짓눌려 있던 나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정에 따스함이 깃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영적인 자녀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눈으로 볼 수는 없었으나 그 아이도 나처럼 열심히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는 내게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분명히 “나는 2월에

태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2월은 브라질의 축제의 달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일이 중단되고 브라질 국민은 한 주일 내내 대대적인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음니다만 그 대신에 교회 청소년 대회를 후원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은 우리 지방부의 지방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2월이 지나갔으나,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간구하였지만 여전히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회의 연사들은 자녀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 심화시키기만 하였습니다.

대회가 지난 목요일 밤, 아동 병원에서 일하는 어느 자매가 몹시 흥분해서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사내 아기가 있는데 사회 사업 협회에서 다음날 정오까지 우리에게 입양시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7시 30분에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밤잠을 못자고 아무 문제가 없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입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 사업가는 매우 친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생모가 마음을 바꾸어 아기를 아침 일찍 집으로 데리고 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신생아실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천근 만근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우리에게 투명한 플라스틱 보육기에 들어 있는 주름 투성이의 아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기는 작은 얼굴

을 우리에게 돌리고는 파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우리들에게 울 아기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오 무렵에 모든 서류상의 절차가 끝났고 오후 6시에 나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가 2월 7일에 태어났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킬로그램이어서 거의 한달 가량 보육기에 들어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을 때의 그의 체중은 2.2킬로미터로, 너무 약해서 울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아기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하였습니다. 그 주일은 금식주일이었으며, 우리는 아기를 위하여 금식하였고, 남편은 아기에게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기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고, 이틀 후에는 약하게나마 울고 몸을 움직였습니다. 육개월이 지나자 그는 소리 내어 웃었으며, 체중 6.8킬로그램, 신장 68센티미터의 정상아로 발육하였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정하신 “좋은 시기”를 기다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울기도 하고 희망을 절기도 하고, 질시하기도 합니다. 나는 9년 동안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야곱과 라헬처럼, 사무엘과 칠레 요한의 부모처럼, 나의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작은 아기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처럼 주님의 신뢰에 상응되기를 간구합니다. \*

# 레이몬드와 버스

캐드런 콩거 엘리스





여덟 명의 우리 가족은 유타주에서 있을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흥분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주말을 기다리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자동차 엔진이 달아오르는 바람에, 우리의 흥분했던 마음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언덕 꼭대기에 이르러 자동차를 길 옆에 세웠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몹시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대의 차들도 정차하여 자동차 후드를 열고는 자동차 엔진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식자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빅터 계곡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안에서 도로 계엄을 시작했고, 자동차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차지는 뜨겁게 작열하는 모자브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인 캘리포니아 베이커였습니다. 마침내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음료수를 마시려 자동차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주유소 사환에게 베이커를 지나가는 버스가 언제 있느냐고 묻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우리의 작은 자동차로는 베이커의 반대쪽의 31킬로미터나 되는 가파른 기슭을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환은 한밤중까지 이곳을 통과하

---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제가 하나님께

버스를 보내 달라고 부탁할게요.”

---

는 버스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여름에는 열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한밤중에만 운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오후 두 시였습니다.

아빠는 사환과 함께 잠시 자동차를 손질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잠시 가족 회의를 갖고 계속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힘든 사막이었습니다. 겨우 29킬로미터를 간 다음 우리의 작은 자동차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끝없이 불붙는 사막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빠는 훌륭한 정비사였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여덟 명의 우리 가족은 칠월 중순의 어느 한낮에 황량한 사막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막의 연중 평균 기온은 섭씨 43도 내지 48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도 거의 없었고 그곳은 외인을 태우기 위하여 차를 세우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태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살 된 꼬마 레이몬드의 신앙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자동차의 눈에 띄이기 하기 위하여 우리 자동차에 기를 꽂으려고 할 때 레이몬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제가 하나님께 버스를 보내 달라고 부탁할게요.”

아빠는 그에게 버스에 대하여 말할 기분이 아니었고, 우리도 역시 그에게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고속도로 표지판이 있는

데로 가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더니 일어나서 우리에게 걸어들어와서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스를 보내 주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버스가 바로 지금 언덕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고집하였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버스는 한밤중이나 되어야 오지 그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려 할 때 버스 한 대가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을 뚫고 언덕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기가 질려서 서로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기사에게 가서 우리를 네바다 라스베가스까지 태워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사가 찬성하자 우리는 올라타서 일곱 개의 빈 좌석을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에 그대로 남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라스베가스에 도착하자 숙부에게 전화하여 아빠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유타주 패러월에 도착하여 모든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나의 계보 탐구 16년이 바로 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아버지는 그날의 시련을 상기하면서 버스 운전 기사가 문을 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차를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정 시간보다 여러 시간 늦었거든요. 사막에서는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버스 회사의 사칙입니다. 하지만 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가 차를 세웠는지 압니다. 그것은 우리 어린 동생 레이몬드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맺은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

# 부엌에서 받은 응답

수 앤 크로킷

나는  
영은 우리에게  
각기 개별적인 방법으로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교리와 성약 8편의 말씀을 통해 항상 감동을 받는다. “……지식을 얻게 될 것을 믿으며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같이 참으로 분명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교성 8: 1, 2)

이 얼마나 힘있는 말씀인가!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때때로 산더미처럼 물려드는 문제 속에서 나는 그와 같은 영의 임재를 느끼는 때가 있다. 그것은 올리버 카우더리의 경우처럼 “가슴을 뜨겁게”하는 강렬한 표적은 아니더라도 영의 느낌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영이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을 때, 나는 영이 “그래, 해봐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했다. 메시지는 명백하였다. 그러나 나는 친동 번개와 같은 보다 강한 무엇인가를 기대했었다. 그래서 일단 분명하게 인식되었던 것에도 회의의 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결정을 재평가하였으며, 다시 그것에 대하여 기도를 드렸고, 결국 첫번째의 결정이 옳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왜 나의 응답은 친지를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었는가? 내게 그러한 응답이 내려졌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또한 영의 영향을 느낄 때도 있었으나 그것이 너무도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친 때도 많았다. 내가 경험한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나는 망설이다가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바빠서.” 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일 걸어봐도 되겠지.” 후에 나는 그때의 생각대로 했더라면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영향력임에 틀림없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어느 현명한 친구가 나에게 성령이 임할 때마다 그것을 맛보게 되면 다시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종종 그 충고를 잊었으나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친구의 충고를

따를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과 똑같은 날이었다. 보통 날처럼 18개월 된 아들이 내 발 밑에서 놀고 있었는데 나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그때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쳐다보면서 방실팽실 웃고 있는 통통한 작은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았다. 긴장이 고조되어 결국 아이를 야단치려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그것은 죄의식이거나 아니면 나를 변화시킨 어떤 것들의 결합일 것이다.) 나는 내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나무토막 성을 쌓는 것을 도와 주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때 일이 일어났다. 나 자신이 영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그것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나팔이 울린 것도 아니고, 창문을 통하여 번개불이 번쩍이지도 않았으며,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았다. 다만 평화롭고 따스한 느낌이 나의 전신을 감돌았을 뿐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어린 아들을 당겨 안자, 영이 내게 말해 주었다. “너는 바로 그와 같이 행해야 한다. 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참으로 단순하고 영적인 경험이었다. 영혼이 불처럼 뜨거워졌는가? 뜨거운 느낌이 아니라. 평화로운 느낌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영이었다.

부엌에서 그런 경험을 한 그날 이후로 나는 그와 비슷한 증거의 경험을 여러 차례 겪었다. 내가 계시의 입문에 대한 책을 저술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리 고요하게 찾아드는 영의 느낌일지라도 그것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교회 교육 기구 교사 지도 책임자

---

구약에서  
생득권(장자)의 상속은  
어떠한  
율법에 따른 것입니까?

---

**히**브리인의 몇 가지 전통과 습관이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부계(가장의) 지배 형태, 장자법 및 일부다처제가 그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또는 족장)이 가족—여러 아내, 아들, 미혼의 딸, 아들의 가족 등등—을 직접 거느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가장의 권리는 그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분쟁을 없애기 위하여 장자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즉시 장자가 새로운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순서로 인하여 얻게 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생득권이라 하며 그를 장자라고 부릅니다. (창 43:33 참조) 장자 또는 생득권을 지닌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의 두 배(다시 말해서 다른 아들의 두 배)를 받게 되는데 이는 아들로서의 상속과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상속(창 48:22, 신 21:17 참조)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데에는 모친과 결혼하지 않은 누이를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론의 반차에 따르면, 장자는 가족을 관리하는 권한도 지게 됩니다.

가장에게 아내가 한 명만 있을 경우,

어떤 아들이 생득권을 갖게 될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주님께서 몇몇 그의 족장 또는 가장에게 여러 아내를 두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가장에게는 각 아내에게서 난 여러 “장자”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자연히 어느 아내에게서 난 장자가 아버지의 사망에 이어 진 가족의 가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관습과 전통에 따르면 첫번째 아내의 장자가 합당하면 생득권을 받는 아들이 됩니다. 그가 합당치 못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만 둘째 아내의 장자에게 생득권이 넘어갑니다. 장자 모두가 합당치 못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차남에게 생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같은 관습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에서 족장들 가운데 “다스릴 권리”에 관한 다음의 실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삭과 이스마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로 세 명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입니다. 둘째 아내인 하갈이 처음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아내(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생득권을 갖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삭을 낳자, 그가 첫째 아내의 장자이므로 장자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 야곱과 에서

성경은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 한 사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산으로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장자인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첫째 아내의 장자로서 에서는 장자법에 따라 생득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의 부모가 원하는 성약의 민족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생득권을 지키기에 합당치 못함을 보여 주었으며(창 26 : 34—35 참조), 또한 그는 순간적으로나마, 생득권에 대한 소망을 잃고, 야곱에게 그 권리(장자의 명분)를 “떡과 팔죽”과 바꾸어 팔았습니다.(창 25 : 29—34 ; 히 12 : 16 참조) 그리하여 차남인 야곱이 이삭의 장자의 명분을 갖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 25 : 23) 리브가가 남편 이삭이 야곱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 요셉과 르우벤

이스라엘이라고도 일컫는 야곱은 레아, 라헬, 빌하 그리고 실바의 차례로 네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들 아내로부터 야곱은 열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출생 순서대로 열거되었으며, 괄호 안에는 모친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1) 르우벤(레아), (2) 시므온(레아), (3) 레위(레아), (4) 유다(레아), (5) 단(빌하), (6) 납달리(빌하), (7) 갓(실바), (8) 아셀(실바), (9) 잇사갈(레아), (10) 스블론(레아), (11) 요셉(라헬), (12) 베냐민(라헬).

첫번째 아내의 장자인 르우벤이 생득권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빌하와 함께 간음함으로써 합당치 못함을 보였으므로(창 35 : 21—22 ; 49 : 3—4 참조) 생득권은 라헬의 장자에게로 넘겨졌습니다. (대상 5 : 1 참조) 요셉은 출생 순서로는 열 한번 째이지만 그가 둘째 아내의 장자이므로 생득권의 서열로는 두번째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특별한 웃옷을 만들어 입혔으므로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망하면 요셉이 가족을 관리하게 될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 에브라임과 므낫세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요셉에게는 아스낫이라는 아내 한 명뿐이었으며, 그들은 장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창 41:50—52 참조)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조부이신 야곱에게 데리고 가 그의 축복(가장의 축복)을 받게 할 때, 요셉은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였음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먼저 놓고 그에게 더 큰 축복을 주자 요셉은 “기뻐 아니하였”(창 48 : 17—20)입니다. 성경이나 현대의 경전에는 야곱이 일반적인 장자법을 어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으나 요셉 스미스의 영감역(창 48 : 5—11)과 교리와 성약(133 : 32—34)에 보면, 야곱이 주님의 지시를 받아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에브라임이 요셉의 생득권을 받았으며, 요셉은 야곱(이스라엘)의 생득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지닌 아들이로서, 주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께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렐 31 : 9) \*



#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 : 18)

존 에이 그린

나는 여러 해 전에 어느 지부 대회에서 배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먼저 지부장님과 제 1 보좌가 말씀하고 제 2 보좌의 차례가 되었다. 나는 수줍어하면서 연단으로 나아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회중을 내려다볼 때 나도 그의 눈길을 따라 회중을 둘러보았다. 두세 명의 형제들이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분명히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고, 몇몇 엄마들은 부산스럽게 구는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굳이 회중 가운데 앉으려 했던 선교부장만이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면서 연사를 똑바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제 2 보좌는 얼굴을 붉히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하는 것이 제게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라고 고백했다. 그는 어색한 듯이 잠시 말을 끊었

다. “지부장님이 제게 오늘 말씀을 하라고 부탁하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생애에서 이번이 두번째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 교리를 훌륭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책에서 몇 말씀을 적어 왔습니다.”

그의 큼직한 손이 양복 옷저고리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큼직한 땀방울이 이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준비한 말씀 원고가 없는 것이었다. 다른 주머니에도 없었다. 나는 그가 안스러웠다.

나는 그가 내가 전하는 이 말을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형제님의 간증을 말하십시오.”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베풀어 놓은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찾지 못하자 그는 연

단에서 내려가 예배당 뒤에 있는 의투를 걸어 놓은 곳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가 의투를 입고는 나가 버리려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찾는 것은 그의 말씀 원고였다. 의투 주머니에 말씀 원고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쓴 원고를 조심스럽게 펴면서 다시 연단으로 올라왔다. 다시 한번 연단에 서서 그는 당황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원고를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를 향한 영민의 정으로 똑같이 불안해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그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영이 나에게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내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작은 음성으로 변화하여 들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나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였다.

“너는 분명히 훨씬 잘 할 수 있다.” 나는 “또 다른” 나의 말을 들었다.

나는 마음이 편치 못하였으나 그럴 것이라는 수궁이 갔다.

“기회가 있으면 이 사람에게 좀 가르칠 수 있을거야.” 또 다른 나의 음성이 계속 들렸다. “너는 박사에다가 칠십인 이요, 지방부 선교부장이 아닌가.”

그 음성은 너무나 명백했다. 나는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대부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접상 연사를 바라보지 않고 있었다. 다만 선교부장만이 그를 열심히 존경하는 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웃기는 일이야!” 내가 또 다른 계속 말했다. “훌륭한 연사는 여기 앉아 있고 형편없는 사람이 연단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니.”

또 다른 나와 의 대화는 참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함으로써 또 다른 나의 음성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연사의 미숙함과 실수가 계속되어 그렇게 하기도 힘들었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려는 것이지?”하고 작은 음성이 계속 나를 괴롭혔다.

“모르겠어.” 나는 다급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무엇인가 배울게 있겠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듣고 있지 않았다는 말인가?”

“안 들었어. 난 지금까지 어리석은 토론만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에게서 배운 것이 전혀 없단 말인가?”

“없어.”

“그가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이 모임의 분위기에 대하여 전혀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래……”

“이 연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그를 돕고 싶은가?”

“돕고 싶어.”

“그러면 돕게.” 음성이 말했다. “잘 듣는 것이 돕는거야……”

그 순간 나는 자신과의 대화를 그쳤다. 이 무언의 토론으로 머리가 상당히 혼동되어 나는 눈을 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나임을 자인하여 이 모임의 분위기에 도움이 되게 해주 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드렸다.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바대로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나는 간구 하였다.

그리고는 머리를 들어 연사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양으로 온 힘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하였다.

그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십년 동안 나는 어떤 문제로 시달려 왔었다. 어떤 교리에 대한 문제였다. 나는 그 답을 알았어야 했다. 교회에서의 나의 경험과 경전 공부를 그만큼 했으면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나의 간증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십년 동안 나는 그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그 답을 나는 그날 들은 것이었다. 나는 예언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회에 종종 참석하였으나 아마도 제 2보좌로부터 그 답을 듣게 된 그날까지 진정으로 귀기울여 듣지 않았었던 것 같았다. 그는 더듬거리며 자신 없이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 말씀의 메시지는 내 영혼에 불을 당겨 놓았다.

나는 지금 그가 나에게 영으로써 가르쳤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영으로 귀기울이려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의 말씀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십년 동안 내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외에도, 나는 귀기울여 들으라는 부름은, 말씀을 하거나 가르치라는

부름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예수께서는 친히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나의 어떤 약점을 알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모임과 분반 시간에 영적으로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연사와 교사가 준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듣는자로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가 영으로 듣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많은 훌륭한 것들을 축적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들음으로써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참석하고 있는 모임이나 반의 분위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 지부 대회에서 얻은 경험은 구세주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귀있는 자는 들으라”(마 13 : 9 ; 막 4 : 9 참조)고 주님은 종종 말씀하셨다. 그리고 경고하는 태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눅 8 : 18)

나는 구세주께서 권고하신 대로 내가 듣는 능력을 향상시키면 사도행전에 기술된 것과 같은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사도행전 4 : 31-32) \*

---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바대로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





## 축복사의 축복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축**복사의 부름과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 문제에 대하여 진실로 이해하려면 인간의 전세의 생활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우리가 이 지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된다면 축복사의 부름을 이해하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존 에이 윗소 (1872—1952, 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형제는 제 1차세계 대전 중에 영국으로 여행하였는데, 그를

접견한 영국의 출입국 관리원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됩니다. 당신을 입국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교회 선교사들을 입국시켰습니다만 당신네 교회의 지도자들은 누구든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앉아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윗소 형제는 가서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관리원이 그를 다시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나라에 입

국시킨다면 당신은 우리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자 윗소 박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 세상에 있으며,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관리원은 그를 쳐다보더니 “당신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윗소 형제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말하더니 그는 여권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는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키도 키잡이도 없이 망망대해에 떠 있는 일엽편주와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과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희망하는 항구에 보다 잘 기항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의 참된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왜 우리가 여기에 왔으며, 이 지상에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대되는 바를 설명하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29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예지 곧 진리의 빛은 창조되거나 지음을 받지 아니 하였나니, 참으로 그러할 수는 없느니라.”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어떻게 예지로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서 계셨으며 계시에 따르면 그가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예지로운 분이었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하나님이 이 영들을 보시니 좋은지라, 그가 저들 가운데 서시며 가라사대 나는 이들을 나의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영이 된 이들 가운데 서 계셨음이라. 그가 보시니 저들이 좋았더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는 저들 중 하나라. 너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아브라함서 3 : 22-23)

아브라함만이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록은 다른 많이 사람들에 대해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택함을 받은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들보다 위대하고 고귀한 영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 성구는 그가 위대하고 고귀한 영들 가운데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오게 될 고귀한 영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영은 물론 그리스도 이시고 장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사탄은 훌륭한 영들의 하나인 계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로 인하여 그는 지구로 쫓겨 났고, 하늘의 천군의 삼분지 일을 떠러왔습니다.

이러한 영들이 살아 있었고, 그들은 알려졌기 때문에—하나님이 그들을 알았기 때문에—모든 예언자들은 그리스

도의 사업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가 할 바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생활, 그의 성역,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 심지어는 그가 죽을 때 그의 의복을 갖기 위하여 제비를 뽑을 것이라는 것까지 모든 자세한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며, 그가 세상에 구속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일 이같은 영적인 존재가 없이 그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어떠한 성품의 영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인간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에는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을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떠한 일들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했고, 적합한 때에 특정한 영을 보내어 준비하게 했으므로, 이 세상에서 일이 수행되는가를 기다려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명과 성역이 미리 알려졌던 것같이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성역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은 요한의 태어남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을 미리 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이 지상

에서의 사명을 알기 위하여 그가 이 지상에 살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영원한 세상에서 그가 부름받은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천사는 니파이에게 요한이 성취하게 될 일을 계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니일 14 : 20—27 참조) 축복사의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 주

---

축복사의 사명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 지상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

어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하는 것입니다.

“모세처럼”(니이 3 : 9) 선견자요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의 사명에 대하여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주께



서 그에게 명하신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그가 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이 3장 참조) 그러므로 축복사가 그의 부름의 영감으로 요셉 스미스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그가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에게 지도자로서의 위대한 능력을 선언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언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에 대하여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예레미야 1: 4-6)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축복사의 사명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엨 1: 1-4)

그러므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신 자들—그리고 내가 간증드리거니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아래 태어난 우리 대부분과 영원한 진리의 사자의 음성에 귀기울여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이 약속을 받았으니—주님은 세상에서 그들을 지도자로, 또한 빛이 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사라지면 모든 사람들의 시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 중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성임하신 위대한 사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사의 축복의 목적의 하나인 우리에게 현세에서 영감을 주어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부름에 합당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많은 축복사들을 성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임했던 첫번째 형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성임받은 지 몇 주 일 후에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준 축복문을 거듭 읽으며 그것은 제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어느 특정한 곳에 있

었는데 그곳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명의 소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축복사에게 갔습니다. 축복사는 두 명 중 한 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잘 아는 소년에게 “네게 아주 훌륭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년을 먼

주님은 그 축복사에게 축복사는 아무에게나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명예롭게 하고자 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며, 자신의 영감으로 말할 때 그들은 남에게 베풀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며 축복사는 단지 축복을 주시는 주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모세와 야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준 축복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새로운 땅을 약속받아 그의 가지가 땅을 넘고, 위로 하늘의 축복과 아래로 땅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축복을 준 야곱이나 모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요셉에게 주실 새로운 땅이 어디인지, 또는 이스라엘의 큰 지파의 가지가 땅장을 넘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복사도 그들이 주는 축복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얼마 전에 나는 축복사 한 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선교부 지역에서 온 여인에게 주었던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을 주는 가운데 그는 그녀의 선조들이 복음을 말일에 전파시키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축복이 끝난 후,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종자입니다. 저의 가족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으로는 제가 처음입니다.”

축복사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자매님께 그렇게 말하라는 지시

## 만일

우리들 중에

또한 주님께서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성입하신

위대한 사명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축복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훌륭한 축복을 주겠노라고 말했던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를 받았다는 것뿐입니다.” 그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 때 쫓겨나는, 케보 도서실에서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의 조부모와 증조부모가— 교회 초기에 큰 회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일부가 동부로 옮겨 가게 되어 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초기 개척자의 후예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축복사 자신도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성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말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아리조나에 있을 때, 스테이크 부장이 선교사의 부름을 받은 아들에 대하여 내게 말하였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에 축복사에게 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사는 아들에게 그가 받을 임무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대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홍수를 볼 것이나 그대의 생명이 보호되고 보존되리라.” 아들은 이스트 센트럴 스테이크 선교부로 가게 되었으며 그가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선교사는 캔터키주 루스빌에 고립되었다가 보우트를 타고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서 홍수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축복사가 그 축복을 하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었다면

축복사가  
그 축복을 하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축복사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33세에 축복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준 첫번째 축복은 우리 형제들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8살이었으며 우리 형제는 세명입니다. 오늘 그 축복문을 가져다— 언젠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옆에 펴놓으면 우리 형제들을 아시는 분은 축복문의 이름을 보지 않아도 어느 축복문이 누구의 것인가를 쉽게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8세인 나에게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그때 이후로 줄곧 나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어 왔으며,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업을 행하기에 내가 합당하지 못하여 나에게 관제되는 주님의 섭리의 어떠한 일이라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합당하게 살게 해주시기를 항상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닫고, 여러분의 특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막이 걸리고 여러분에 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원한 계획을 볼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살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축복하시어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 에밀리의 자존심

윌리엄 지 하틀리

딕 브라운 그림



추운 겨울 두 달 동안의 야영으로 신혼 여행을 대신하는 신혼 부부는 그리 혼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18세의 신부인 에밀리 애벗트와 신랑 에드워드 병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당시 사도였던 존 테일러가 나부에서 이들을 남편과 아내로 인봉한 직후 그들은 1846년 2월에 얼어붙은 미시시피강을 건너 다른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부로 옮겨갔다. 그들은 피난민으로서 매일매일 진흙과 눈 속에서 야영을 하면서 아이오와를 횡단하여 여행길을 재촉해야 했다.

아이오와주 가든 그로브에서 에드워드는 단칸 방의 오두막집을 겨우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문이나 문도 없고 바닥은 더러워서 그의 새 신부를 맞이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다. 에

드워드스는 에밀리가 부유하게 자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뉴욕주 맨스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녀는 아버지의 방직 공장에서 들어오는 상당한 수입으로 부유한 생활을 했다.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그 지역의 일류 사립 학교에 보냈다.

에밀리가 열 살이 되었을 때 에밀리의 가정은 서부로 이주하여 일리노이에서 40에이커나 되는 넓은 땅을 경작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물몬으로 개종하여 곧 나무로 이주하였다. 그러다가 1843년에 에밀리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다른 다섯 명의 형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십대의 에밀리는 근처의 가정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고된 양부 짓는 일을 열심히 배워 그녀는 훌륭한 재봉사가 되었으며, 재봉 일을 하는 중에 그녀는 에드워드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들의 가든 그로브 통나무집에서의 생활은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에드워드스는 시간제 일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어떤 때는 옥수수를 집에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베이컨을 가져 오기도 하였다. 미연합국 군대에서 물몬 대대 지원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군대 봉급으로 에밀리가 서부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였다.

에드워드스는 그가 꼭 돌아올 것을 기약하며 에밀리와 그녀의 친정 가족을 남겨 두고 떠났다. 일년이 채 못된 1847년 1월에 젊은 주부는 가난을 통해 자존심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배웠다.

바느질에 능숙한 에밀리는 때때로 자기만큼 옷을 잘해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어린 아기가 반들반들한 커텐지로 지은 옷을

입은 것을 보았다. 푸른색 바탕에 꽃무늬가 있는 친이었다. 어린 아이에게 커텐지로 옷을 해 입히다니! - 그녀는 어린 아기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좀더 좋은 옷감으로 옷을 해 입히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나 같으면 내 아이에게 그런 옷은 입히지 않겠어요. 설사 입힐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요!”라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해 1월에 에밀리는 첫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아기에게 입힐 옷이 하나도 없었다. 캠프 안에는 아기의 옷을 지을 만한 옷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에밀리가 비난하였던 그 어머니 이외에는 아무도 팔 옷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어머니는 에밀리에게 친절하게 말했다. “우리 아기 옷을 만들었던 옷감이 좀 남아 있어요. 가지셔도 돼요.” 에밀리는 자존심을 꺾고 그 커텐지를 받고는 돈을 지불하였다. “아니에요. 돈을 받을 생각은 없어요. 다만 더 좋은 옷감이 없다고 울며 주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아주 기요하게 쓰시기 바랄 뿐이에요.”라고 그 어머니는 말하였다. 에밀리는 아들을 위하여 만든 커텐지 옷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 한동안 이 옷은 그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이 되었다.

에밀리의 남편 에드워드스가 18월개의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11개월된 아들을 보게 되었다. (그 아기가 무슨 옷을 입고 아빠를 맞았는지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다.)

여러 해가 지난 후, 1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된 에밀리는 자녀에게 돈과 세상적인 것이 부족할 때 그 상황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하여 커텐지 옷 이야기를 곧잘 들려주었다. \*

# 주님의 방법을 간구할 때

스티븐 엘 러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다정한 노인, 줄리아 무노즈  
비우라데 올베라 할머니가 말하였다.  
“이제는 여러분의 상호부조회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겠어요.”

나는 동반자와 함께 귀를 의심하면서  
그녀가 열어준 문밖에 서 있었다. 올  
베라 자매는 전통적인 종교 습관에 깊  
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터였으나, 그녀에게서 그  
와 같은 말이 나오리라고는 전혀 예상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녀는 선교사 토  
론을 모두 마쳤으며, 복음을 설명해 주  
는 소책자도 다 읽었고, 현재 물몬경  
을 읽고 있으며 교회 모임에도 충실하  
게 참석하고 있었다.

멕시코의 코아후일라에 있는 누에바  
로시타 지부 회원들이 그녀를 불쾌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우리는 그 같이  
돌별한 이유를 물었다.

“회원들은 모두 훌륭해요. 모임도 아  
주 좋구요. 교회에 갔다 오면 정말 기  
분이 좋아요.”라고 그녀는 설명하였다.  
“하지만 말예요. 난 안경을 잃어버렸다  
우. 안경이 없으면 난 물몬경이나 상호  
부조회 공과책 등과 같은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없대우.”

우리는 이 일이 그녀에게는 매우 심  
각한 것이었으며, 그녀가 크게 낙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모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님을 그녀에  
게 확신시켜 주려 하였다. 사실 그곳



지부에는 읽고 쓰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말도 그녀에게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요 낙이었던 바느질도 포기하여야 할 판이었다. 새 안경을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안과에서 지시하는 대로 맞춘 안경을 갖는 일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누려 볼 수 없는 사치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이웃 사람들조차 그러한 안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나는 할머니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개인적인 기도로 도움을 구하라고 격려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렇게 하면 안경을 찾을 수 있고 다시 것처럼 인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녀의 집에서 나오자 나의 동반자는 그와 같은 허황된 약속을 한 것을 나무랐다. 그러나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에게 주님께서 그녀의 요청을 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며칠 후 우리는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러나 할머니는 전보다 더 낙심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는가? 할머니는 믿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할머니는 여러 번 간절히, 진정으로 기도하였으나 모두 허사였다고 말하였다. 당황한 나는 안경을 찾도록 도와 주시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느냐고 말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암기하였던 모든 기도를 열심히 외웠다고 대답하였다. 그 순간 여러 달에 걸쳐 그녀를 가르쳤던 것 중에 개인적인 기도의 필요성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온 몸에서는 맥이 빠졌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어린 아이가 말하듯이—외워서 하거나 중언

부언 하지 않고—진심으로 안경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증보자로서의 구세주의 역할을 강조하여 주었으며, 모든 기도는 구세주의 이름으로 간구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해 주었다. 할머니는 전에 항상 그러하였듯이, 여전히 자의식이 강해서 폐회 기도를 드리기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친 대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며칠 후 우리가 다시 할머니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는 그 주일에 침례를 받고 싶다는 놀랍고도 즐거운 소식으로 환영받았다. 우리는 이같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우리가 가르쳐 준 대로 무릎을 꿇고 결손하게 기도드렸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안경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할머니가 기도를 마친 뒤 일어나 제봉들 앞에 앉았을 때 조그마한 개 한 마리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더니 그녀의 발 밑에 앉아서는 입에 문 것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안경이었다!

그녀는 안경이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그 개도 한번도 본 일이 없는 개였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로 침례를 받기를 원했으며, 그녀가 발견한 즐거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게 되기를 원하였다.

이 기도로 인하여 얻게 된 큰 보상은 곧이어 할머니의 두 딸과 여러 손자 손녀들이 침례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의 세대들은 줄리아 무노즈 비우다테 올베라의 이름을 영원히 축복할 것이다.\*

기 기차가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동안 나는 조바심과 흥분, 기대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1961년 6월, 나는 열 여섯 명의 다른 학생들과 함께 불어를 연구하기 위하여 캐나다 퀘벡으로 브리감 영 대학교 수학 여행길에 오른 것이었다. 우리는 내일이면 목적지 퀘벡에 도착할 예정으로, 우리의 기대가 점점 커져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의 기대가 커감에 따라 불안감도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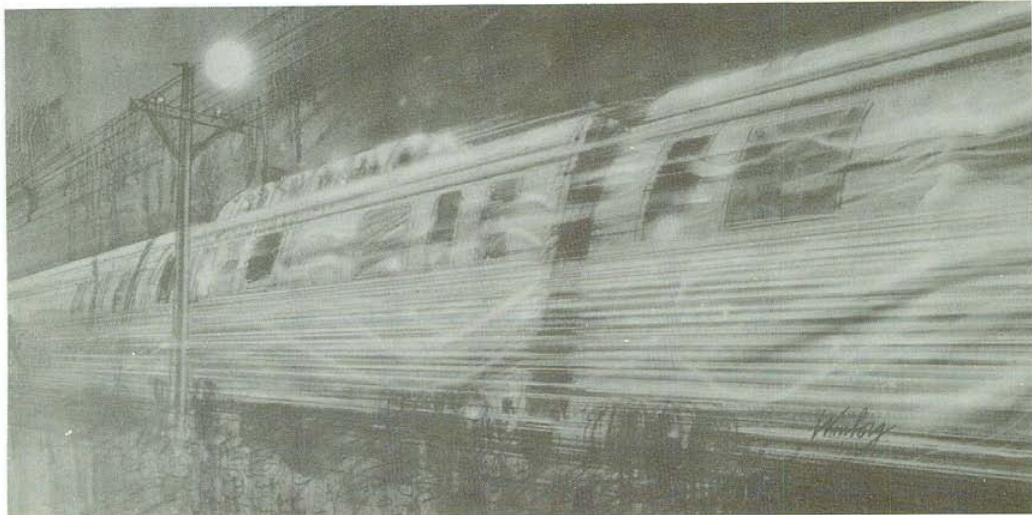
갔다. 두 가지 문제점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회가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그에 관하여 많이 생각해 왔다.

나는 주민 전체가 말일성도인 아이다호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교회 회원으로 자라났다. 사실, 주변의 모든 지역 사회가 거의 말일성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사교 및 지역 사회의 활동이 모두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곳을 떠나 나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건전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그 결과로 19세인 나는 한번도 비회원들과 가까이 교제해 본 적이 없었다.

한두 번 내가 비회원을 만났을 때 나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싶었으나,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말을

## 한밤의 음악회

다이아나 맥파랜드 브라운



할 수 없게 되어 그러한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었다. 물론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또는 물론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냐는 등의 가장 귀한 질문을 목이 메어 던질 수 없었으며, 확신을 갖고 말하려 하면 음성이 떨려 나오곤 하였다. 내가 그토록 깊게 느낀 것을 말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종교에 대하여 물으면 내가 너무 꼬치 꼬치 캐묻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나는 나 자신에게 분개하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롬 1:16)다면, 어찌서 이 복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것이었다. 우리가 캐나다 퀘벡에 도착하여 라발 대학에 등록하면, 우리는 여름내내 불어만을 사용해야 했다. 나는 불어를 겨우 1년간 공부했을 뿐으로, 나의 불어 실력은 유창하다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나의 친구들도 대부분이 겪는 문제로, 이 수학여행의 한 가지 목적은 형편없는 불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날, 흥분한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밤이 되자 우리가 타고 있던 객차의 승객들은 잠자리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그룹은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기 때문에 잠잘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 도움(반원형) 칸으로 가서 불어 노래나 부르면서 불어 연습을 하자.” 누군가가 제안하였다.

우리는 타고 있던 객차 안에서 나와 연결되어 있던 도움형 칸으로 들어갔다. 기차의 도움형 칸은 이층으로 되어 있었다. 아랫층은 보통 객차와 비슷하나 좌석이 적었고, 이층은 도움칸까지 층계로 연결되어 있었다. 도움은 이 높은 곳에서 크게 반원을 그리고 있는 창문을 통하여 파노라마와 같은 전경을 보여 준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아랫층은 거의 비어 있었다.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 도움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젊은 엄마가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달래고 있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젊은 엄마에게 노래를 불러도 방해가 되지 않겠는지 양해를 구하고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불어 액센트를 남용하면서 단어를 더듬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곧 우리의 빈약한 불어 노래의 레퍼토리가 바닥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일성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불러 오던 찬송가를 부르니 힘이 쏙고 용기가 생겼다. 나는 어린 아이가 울던 것을 멈추는 것을 보았으며, 곧 아이는 엄마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노래를 불렀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내 구주 살아 계시다”와 “오 높은 영광 보좌”를 부르면서 영이 승화되고 강한 확신을 느낀 점이라든가, 그리고 “공화국 찬송가”를 불렀을 때 느꼈던 행복감 등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마침내 우리는 “성도들아 두려울 것 없다”로 끝마쳤다. 마지막 구절인 “모든 것 잘되리”를 부른 다음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도움칸을 떠났다.



내가 제일 먼저 도움칸을 나와 아랫층으로 내려갔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수십 명의 얼굴들이 우리를 올려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텅 비어 있던 좌석이 가득 찼고 통로에까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듣기 위하여 모여든 것이었다.

계단 가까이에 서 있는 여자가 나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였다. “노래가 참 아름답군요.” 그녀가 말했다. “마음속으로부터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일 거예요. 아가씨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지요?”

“우리는 물몬이에요, 아주머니.”라고 내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물몬이요……”하고 그 부인은 중얼거렸다.

그 부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었다. 나의 마음은 여전히 노래하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이 “물몬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계시나요”라고 묻고 있는 것을 알았다.

“태버내클 합창단의 합창을 들어 보았지요.”하고 부인이 대답하였다.

“물몬에 대하여 더 알고 싶지는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네, 알고 싶군요.”

“어떻게 하지?” 나는 갑자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마침내 가장 귀한 질문을 하기는 했는데,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때 갑자기 확신에 찬 조용한 음성이

등 뒤에서 들려 왔다. 돌아다보니 우리 그룹의 귀환 선교사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여자의 손을 굳게 잡는 것이었다.

“아마 요셉 스미스라는 이름을 들어 보셨겠지요. 그분에 대하여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요.”

곧 그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하여 말하고 물몬경의 출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 노래를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진지한 청년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하여 멈추어 섰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와의 접촉을 원하거나, 물몬경을 얻기 위하여 이름과 주소를 적어 주기도 했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찼다. 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친구인 귀환 선교사는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방금 얼마 전에 우리는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을 말해 주는 “오 사랑스러운 아침”을 불렀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교회 어린이들은 “소년의 첫번째 기도” 이야기를 듣는다. 복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 경험은 그해 여름 동안 여러 차례나 나의 지침이 되었다.

그후 나는 가장 귀한 질문을 한 뒤에 집으로 초대하여 필름을 보여 주고 선교사를 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그 밖에도 복음을 소개하는 데 효과적인 많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칭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렀던 기차속에서의 그날 밤을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진실로 뜻깊은 찬송을 불렀으며, 그 메시지는 전달되었던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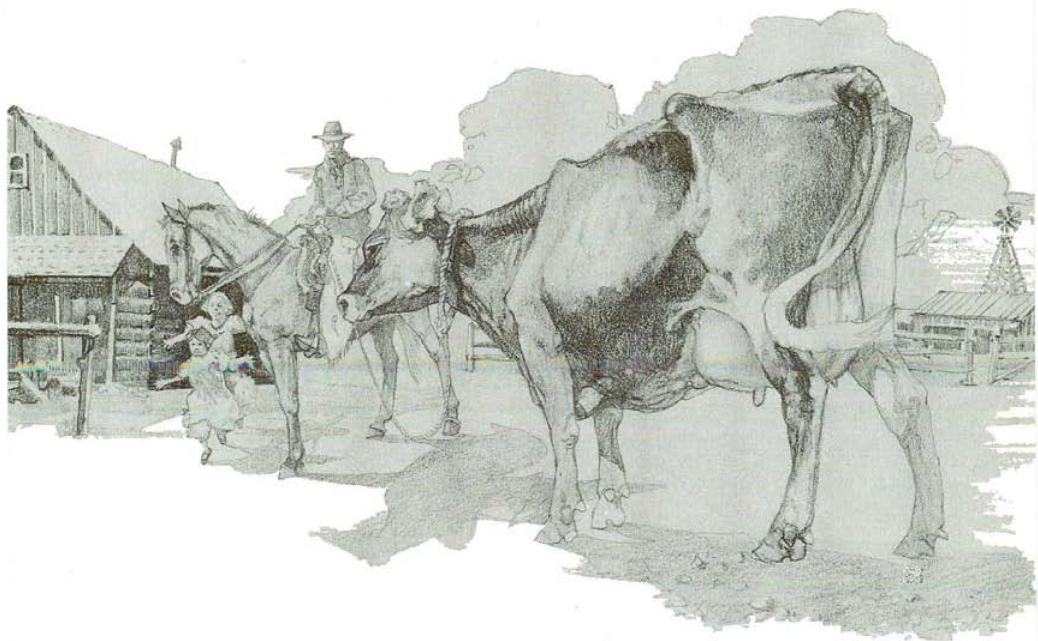
# 이방인의 젖소

로다 루이스 베우닌  
크레이그 팁플튼 그림

지 도상에서 볼 때, 멕시코의 블루워터 마을은 동북쪽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곳은 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마을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다. 그곳은 나의 세계였다. 그곳에서 나는 많은 교훈을 배웠는데

“이방인의 젖소”의 일화가 가르쳐 준 교훈도 그 중의 하나였다.

블루워터 주변의 농촌 풍경은 아름답지만 거치른 면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곳은 메마른 지역으로 평평한 계곡은 붉은 모래 흙으로 덮여 있어, 끊임없이 불어치는 바람은 울타리 기둥이나 다른 것들 주변에 모래산을 쌓아 놓았다. 물이 마른 길은 골짜기가 분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어 그곳에는 일년 중 우기에만 물이 고이는데, 그렇게 되면 흙탕물이 세찬 급류가 되어 흐르게 된다. 구릉에서 떨어 나오는 골짜기의 어귀에는 사시나무 몇 그루가 뿌리를 깊게 내려 지하수를 섭취하며 자라고 있다. 그 사시나무들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바람에나 가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나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이 사시나무 처럼 뿌리를 깊이 박아 꺾



이지 않기를 바랐다.

블루워터는 사실상 물몬과 이방인 사회로 나뉜 지역이었다. 북쪽에는 부유한(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잡화상과 휘발류 펌프가 있는 차고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작은 유니온 퍼시픽 철도역과 미국 우체국도 있었다. 남부의 물몬 지역에는 조그마한 콘크리트 교회 예배당과 붉은 벽돌로 지은 교실이 4개 달린 학교가 있었다. 두 그룹 사이에는 교제가 별로 없었다. 물몬은 물건을 사거나 자동차에 휘발류를 넣거나 우체국에서 편지를 찾기 위해서만 그곳에 가는 정도였다. 기차역에는 거의 기차가 정거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거의 가지 않았다. 이방인 어린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위하여 내려왔고, 이방인 어른들은 간혹 교회 사교 모임이나 무도회에 참석했다.

1930년대의 경제 불황 시기에 우리는 대개 감자와 콩으로 연명하였다. “이러한 것들을 재배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것이 최후의 통첩이었다. 엄마는 감자와 콩으로 훌륭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었지만, 아이들에게 줄 우유는 만들수 없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전화도 보도도 전기도 포장 도로도 없었으며 목장도 없었다. 더구나 통에 든 우유를 살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젖소는 어느 집이나 필요한 필수품이었다. 젖소들의 젖은 모두 말라 버렸다. 부모는 여덟 명의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태산같았다. 만이로 태어난 나도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하면서 “우린 굶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굶지 않았잖니?”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다. 나는 우리가 굶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색다른 음식을 먹고 싶었으며, 더 우기 우유가 필요했다. 엄마는 독백처럼 말씀하셨다. “십일조를 바치는 한, 주님은 우리를 굶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주셨으니까.” 그것은 사실이였다. 나는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받은 것의 십일조를 정직하고 기쁘게 항상 바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열번째 낳는 송아지는 반드시 십일조로 바쳐졌다. 나는 엄마가 매일 밤마다 그날 모아들인 계란의 숫자를 달력에 적어 놓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매달 십분지 일을 주님께 바쳤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게다가 이제 봄이 되었으니 곡식이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오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부지런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문 옆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두 남동생과 여동생을 보았다. 그것은 아직 연기가 나고 있는 시가(켈런) 공장였다. 나는 어떻게 시가 공초가 우리 집 대문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의 담배를 피우는 물몬은 가느다란 담배를 피웠다.

“이거 어디서 난 것이니?” 내가 물었다.

대답은 의심만 더 불러 일으킬 뿐이었다. “티그펜씨카 버렸어.” 티그펜씨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이방인이었다. 그는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왜 왔지?”

다음 대답도 역시 나의 의심을 풀어주기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빠에게 젖소를 주신대.”



여동생이 발로 시가 콩초를 차 버렸다. 우리는 겁을 먹고 서 있었다. 그러나 처만치 떨어진 콩초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남동생이 삽을 가져와 흙으로 시가 콩초를 덮어 버렸다.

아빠가 집에서 나와 목장에 있는 말에 안장을 올렸다. 엄마가 뒤따라 나오시며 말씀하셨다. “지금 가시려고요?”

“응, 티크웬씨가 젖소를 가지러 오라고 말했어. 술이 깨면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오늘 밤에는 우유를 먹게 될게다.”

아빠는 말 등에 안장을 얹고는 안장띠를 졸라매었다. “곧 돌아오리다.” 아버지는 말에 올라타고는 북쪽으로 달려갔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몰라 나도 따라가도 되는지 묻지도 못하였다.

엄마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숙제를 하였다. 등잔에 넣을 기름이 없기 때문에 숙제를 어두워지기 전에 해 놓아야 했다. 엄마는 난로에 장작을 넣었다. 엄마는 남비에 있는 음식을 한 번 휘젓고는 남비를 난로 뒷켄으로 밀어 놓아 타지 않고 따뜻하게 해 놓았다. 엄마는 오븐에서 빵을 꺼내어 난로 옆의 찬장에 놓았다. 그런 다음 식탁을 차렸다.

그때 문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집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아빠가 오세요! 젖소를 갖고 오세요!” 그들은 부엌문으로 나갔다. 나도 뛰어 나갔다. 엄마는 우유통을 들고 따라 나오셨다. 남동생이 재빨리 목장의 문을 열었다.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작은 저지 젖소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소는 우유 짜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어떠한 프리마돈나도 이처럼 감사해 하는 청중을 맞이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빠가 소 젖을 짜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유가 우유통에 쏟아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우유통을 들고 들어가는 아빠의 뒤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난로 문을 열고 어두운 방을 밝게 비쳤다. 그는 우유를 걸러서 주전자에 담아 식탁에 놓았다. 엄마는 따뜻한 빵을 자르고 콩, 감자 그리고 빵을 식탁에 놓았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다. 아빠가 음식을 축복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을 감사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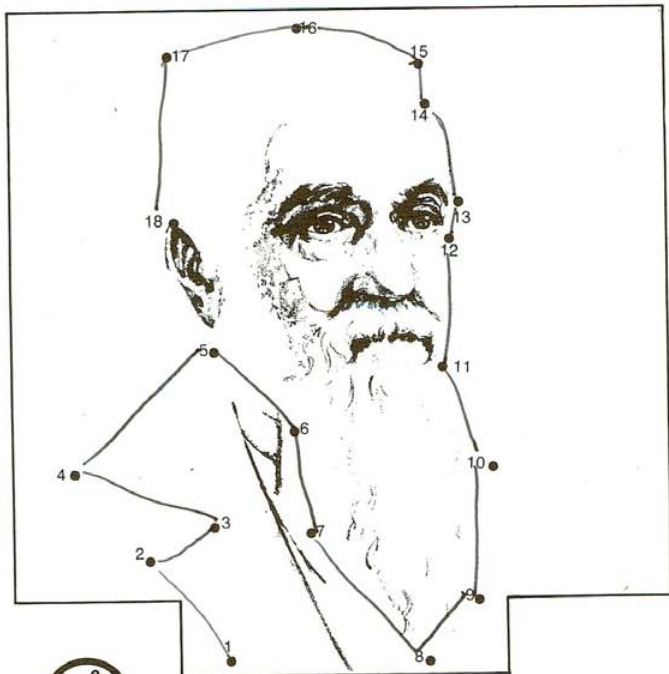
며칠 후에 티그웬씨가 왔다. 그는 자기의 후한 처사를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젖소의 값을 받기 위하여 아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급료로는 상점으로부터 물건을 받도록 제의하는 것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려 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울 것인지 알지 못하겠구나.”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술주정꾼 이방인이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구나.” 나의 간증은 3미터 정도 더 깊게 뿌리를 내렸다.

난로에서 새어 나오는 빛을 받으며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던 때는 오래전의 일이었으나, 그때의 모습은 갓을 벗긴 전구처럼 눈앞에 환히 서린다.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을 먹어 보았다. 나는 살균유, 균질유, 분유, 정제유, 강화유 등을 시음해 보았으나 주님께서 이방인의 젖소로 우리에게 주셨던 영혼을 만족시켜 준 우유보다 나은 우유는 커녕 그것과 견줄만 한 우유도 찾아보지 못했다. \*

로렌조

스노우



1814-1901

스노우 대관장의 87세 생신날인 사월의 아침에는 모든 방이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유난히도 아름다운 장미꽃이 꽂혀 있었습니다. 대관장님이 잠에서 깨시기도 전에 비하이브 하우스에 누군가의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 보니, 스노우 대관장님에게 드릴 예쁜 붉은 색 장미를 한 아름씩 든 어린 두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소녀들은 노래를 두세 곡 불렀으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 사랑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로렌조 스노우는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후에 그는 교사가 되었고, 지역 사회 설립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브리감 영 대관장님으로부터 후에 유타주 브리감시티로 알려진 지역의 50가정을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그가 하와이 군도로 선교사 부름을 받음으로써 중단되었습니다.

하와이 군도에 배가 정박한 후, 로렌조와 그의 동반자는 작은 보트에 올라탔는데 갑자기 그들이 탄 작은 배가 뒤집혀져 그들은 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로렌조는 익사 직전에 발견되어 병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렌조는 이 무서운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가 성취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을 예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84세의 나이로 교회의 제 5대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그후 즉시 그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여 주님을 뵈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스노우 대관장이 완전한 십일조를 바치도록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신 일은 누구나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부채에서 헤어 나오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결단이었으며, 선교 체제를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



## 연에 소망을 띄우며

안드레아 에이치 차트윈  
필리스 록 그림



**하**늘에 걸려 있는 오색의 피라밋을 보자 마이크는 힘껏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파키빌 위의 운동장으로 이르는 가파른 기슭을 올라갔다. 그는 그것이 테트라라고 불리는 연이라고 생각했다. 병으로 직장에서 은퇴하신 그랜트씨가, 지난 해 그에게 연에 대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랜트 할아버지가 아직 델타를 띄우지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마이크는 다

리에 힘을 주어 페달을 더 빨리 밟으면 서도 걱정이 되었다. 델타는 그랜트씨가 여러 달을 두고 수고하여 만든 특별한 연이었다. 그가 마이크에게 그 연의 그림을 보여 준 후 그는 자신의 착상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조그마한 연 모형을 만들었다. 마침내 그랜트씨는 실물 크기의 대형 델타 연을 완성하였으며, 이제 처음으로 날리는 처녀 비행의 준비가 다 된 것이었다.

마이크는 언덕길을 둥글게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아직 안 띄우셨지요?” 라고 외쳤다.

“마이크! 네가 와서 기쁘다. 아직



안 띄워 봤다. 날 도와 줄 충실한 보조원이 없는데 연을 띄울 수 있나?” 그랜트씨는 기쁨과 기대로 눈을 반짝이며서 대답하였다. “나는 얼레와 끈을 최종 점검을 해볼테니 너는 상자에서 연을 꺼내려므나. 그리고 나서 연을 띄우자.”

“어떤 번음대를 사용할 것인가요, 할 아버지?” 마이크가 연을 상자에서 꺼내어 양쪽 활대로부터 2미터 폭의 밝은 빨강색 나일론 천을 펴고 질푸른 용골을 어루만지면서 물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니까 가벼운 대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 그랜트씨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대와 끈을 붙였다. 그런 다음 그랜트씨는 마이크에게 델타를 쥐고 있게 하고는 약 15미터 길이의 끈을 풀었다.

“자!” 그랜트씨가 소리쳤다. 마이크는 될 수 있는 대로 높이 연을 던져 올렸다. 줄을 약간 잡아당기자 연은 위로 치솟아 올라 하늘 높이 날았다. 마이크의 기분도 델타만큼이나 높이 뜨는 것 같았다. 연은 새처럼 높이 치솟아 나일론 천을 나풀거리면서 미풍에 춤을 추었다.

“자, 마이크. 이걸 잡고 연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봐라.” 그랜트씨는 마이크에게 얼레를 주었다. “줄을 좀 잡아당기면 바람이 느슨해진 곳을 잡아서 더 높여 주게 된다.”라고 그는 말해 주었다. “하지만 일단 연이 머리 위로 일직선이 되면 아래로 끈두박질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이런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마이크는 연을 날려 올린 후 의기양양하게 연을 잡고 잠시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지시대로 연습하였다. 그리곤 연을 내려 분해한 다음, 다시 상자 속에 집어 넣었다. “참 멋있는 연이에요, 할 아버지.” 연을 그랜트씨에게 건네 주면서 마이크가 말하였다.

“이건 네 것이다, 마이크.” 그랜트씨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싫다고는 않겠지.”

“감사합니다, 할 아버지.” 마이크는 눈으로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 말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그 주일은 거의 매일 연을 날렸다. 그러나 그랜트씨가 함께 연을 날리며 연 날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실망하였다.

어느 날 오후, 마이크는 할아버지를 한



번 찾아가야 겠다고 생각하였다. 아마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실지 모른다. 그는 집으로 오는 길에 그랜트 씨 댁에 들렀다. 벨을 누르자 할머니가 문을 열어 주셨다. 몹시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였다.

“방해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할아버지가 집에 계신가 해서 들렀어요.”

그랜트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 지금 집에 안계시다.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시단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께 제가 다녀갔다고 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는 자기가 병원으로 문병을 가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매일 오후에 병원에 들러 할아버지의 상태를 물었다.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그랜트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는 나오셨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용기를 잃으셔서 치료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마이크에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의 회복이 늦다는 소식에 마이크는 우울해졌다. 그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는 그랜트 할머니에게 그것에 대하여 빨리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내 계획에 동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였다.

이튿날은 구름이 끼고 약간 추운 날씨였지만 마이크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를 오후 3시 30분에 휠체어에 태워 4층 베란다로 나오시도록 간호원에게 부탁해 달라고 했다. 그 시각에 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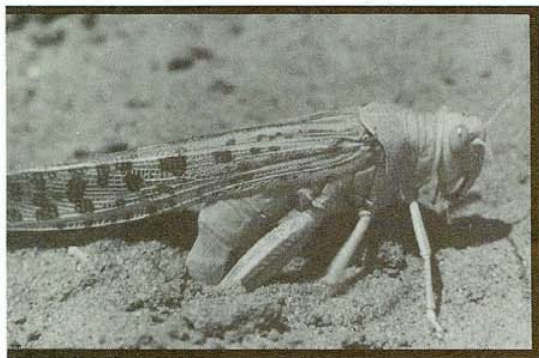
는 델타를 조립하여 높이 날렸다. 연은 하늘 높이 날아 진홍빛 화살처럼 햇빛 하늘을 꿰뚫었다. 갑자기 한 줄기 햇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잠시 델타를 비추었다.

후에 그랜트 할머니는 마이크에게 할아버지의 초점을 잃은 눈이 연을 보자 빛났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연을 도안하면서 보냈던 일, 비상을 시도했던 것, 연을 제작하면서 느꼈던 만족감과 기쁨 등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말씀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그는 간호원에게 얼굴을 돌리고 씩 웃음으로 말씀하셨지. ‘내 어린 친구 마이크가 밖에서 날리는 것이라고. 연 줄 끝에다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보내는 것이예요. 내가 그 아이를 실망시켜서야 되겠소?’” \*

# 메뚜기 이야기

서우드 비 이드소

서나 무니 그림



**수**천년 전, 예언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메뚜기의 재앙이 내려 땅이 황폐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으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날으매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출애굽기 10 : 13—15)

믿을 수 없는 일로 들리지요? 온 애

굽 땅에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험한 바에 의해서 우리는 이 나르는 사망의 재앙이 가져 오는 파괴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메뚜기떼가 오늘날까지도 지구의 오분지 일의 땅을 돌아다니며 황폐케 합니다.

히기진 메뚜기는 일반적으로 큰 메를 지어 몰려다니며 파괴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가장 큰 무리는 약 1,035평방 킬로미터의 넓이를 차지하며, 약 400억 마리 가량이 됩니다. 메뚜기는 매일 자기의 몸무게 만큼의 식량을 먹기 때문에 이 메뚜기떼가 먹어치우는 양은 하루 8만 톤이나 되며, 이같은 양은 40만 명의 일년치의 양식에 해당됩니다. 메뚜기 재앙에 관한 이야기만 나와도 곤충의 기습을 받았던 주민들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메뚜기 재앙은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민족에게는 익숙한 현상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은 1949년부터 1963년까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메뚜기떼의 습격을 받을 여건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더 심한 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뚜기의 수가 현재의 숫자로 증가된





요인을 1977년 가을, 중동 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와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비는 날개가 없는 메뚜기에게 필요한 수분과 푸른 채소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대개 메뚜기들은 성충이 되기 전에 공중 소독 살포로 인하여 지상에서 사멸됩니다. 그러나 1977년과 1978년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메뚜기 방제 대원들이 그들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메뚜기떼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첫번째 메뚜기떼가 1977년 12월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나타났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비가 더 내리자 1978년 봄에는 메뚜기가 사우디 아라비아뿐 아니라 예멘 아랍 공화국,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및 수단에까지 번졌습니다. 세번째 번식기가 지난후 다량의 메뚜기떼가 아라비아해를 건너 인도로 갔는데, 그곳 간지스 강 하류에 많은 비가 내려 인도와 파키스탄이 메뚜기의 주요 번식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50여 개국이 이 가공할 곤충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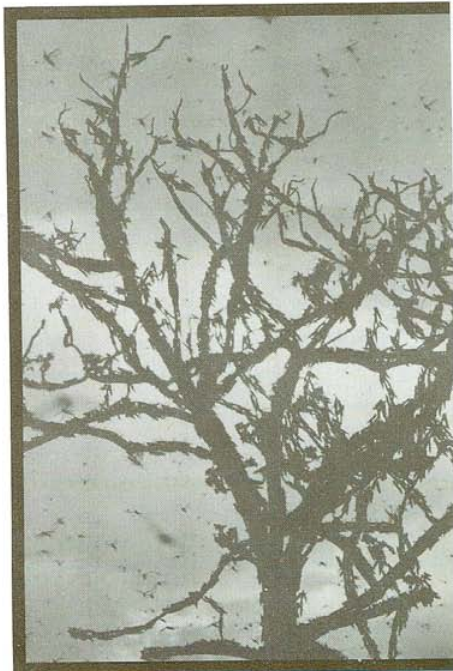
많은 과학자들은 사막 메뚜기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의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이디오피아 농부들이 농작물로부터  
메뚜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살충제를 분무하고 있다.  
(사진 :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 제공)(상)

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무 위에 밤을 보내기 위해  
모여 든 메뚜기 떼.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진 마누엘 제공)(하).

날개가 없는 유충을 찾아 내어 그것이  
성충이 되어 날기 전에 지면에서 멸종  
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일반  
적으로 인간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인공 위성을 사용하여  
그러한 지역에 새로운 식물이 성장하는  
지를 조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식물  
은 최근에 비가 온 지역으로서 메뚜기  
가 알을 낳는 곳에서 자라나게 됩니





1954년 불령 모로코의  
메뚜기 침입 때, 자동차에 치어  
티즈니로 가는 길에  
떨러 있는 메뚜기 떼,  
죽은 메뚜기들은 삼시간에  
살아 있는 메뚜기 떼들의  
밥이 되고 말았다(상).



1954년 메뚜기 떼를 방제하기 위해  
약을 살포하는 사람들.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 스튜디오디 소우이시,  
소우이시, 라바트 제공)(하).

다.  
이러한 메뚜기는 알을 부화시키기 위  
해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므로, 인공  
위성을 사용하여 새로운 식물이 나타나  
기 전에 이러한 습지를 찾아 내기도  
합니다. 그곳을 발견하면 살충제로 지  
면에서 멸종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면 사막의 메뚜기를 근  
절시키는 데 큰 효력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유충을 없  
애지 못하면 공중에서 싸워야 하기 때

문입니다. 또한 공중 살포를 하는 경  
우, 농작물, 가축, 심지어는 사람들에  
게도 유독성의 화학 물질이 오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은 계속됩  
니다. 수천년에 걸친 싸움에서 인간이  
나 곤충 그 어느 쪽도 완전히 승리를 거  
두거나, 아니면 정복되지 못한 것입니  
다. 우리는 다만 새로운 과학의 무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없는 고  
생과 기아가 근절될 수 있기만을 빌 뿐  
입니다. \*



